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2021년 파스카 성야(사파동성당)



주님 부활 대축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요한 11,25)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 제1독서** 창세 1,1-2,2 또는 1,1,26-31
화답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제2독서** 창세 22,1-18 또는 22,1-2,9-10-13,15-18
화답송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제3독서** 탈출 14,15-15,1
화답송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 제4독서** 이사 54,5-14
화답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제5독서** 이사 55,1-11
화답송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제6독서** 바룩 3,9-15,32-4,4
화답송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제7독서** 에제 36,16-17,18-28
화답송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 서간** 로마 6,3-11
복음 루카 24,1-12
-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주님 부활 대축일 낮 미사

- 입답송** 저는 다시 살아나, 여전히 당신 안에 있나이다. 알렐루야.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어 주셨나이다. 알렐루야. 당신 지혜는 놀라운 일 이루셨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제1독서** 사도 10,34-37,43
화답송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제2독서** 콜로 3,1-4 또는 1코린 5,6-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 복음** 요한 20,1-9 또는 루카 24,1-12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 주님 부활 대축일 담화문 4~5면

지식이나, 삶이나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드라마, 나의 아저씨

뭐하다 왔어? 손 빠르던데. / 이것저것, 돈 되는 건 다. 일개 부장 하나 자르려고 왜 저렇게 혈안이 되어있나 싶었는데, 전화번호 보고 알았어요. 그 번호, 박동훈 부장 핸드폰에는 집사람이라고 쓰던데요. / 대학 동기고 변호사야. 자문 구할 일 있어서 통화했던 거지. / 그렇다고 치던가요.

이지안은 어릴 적부터 돈 때문에 너무나 힘든 삶을 보냈고, 돈이 원인이 되어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지금도 빛이 많아 돈을 위해서는 못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갓 스물을 넘긴 그에게 세상은 정글입니다. 물어뜯기지 않으려면, 남의 약점을 알아내 먼저 물어야 합니다.

파견직으로 일하게 된 회사에서 그는, 부서 박동훈 부장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하려 하고, 그 부장의 아내를 몰래 사귀고 있는 대표이사 도준영의 비밀을 알아내며, 또한 도준영이 원하는 일, 곧 박동훈 부장과 박동운 상무를 제거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아저씨” 박 부장의 휴대폰을 도청해 온갖 것을 알아내는 일에 착수합니다.

지식이나, 삶이나

1.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 이런 애 왜 뽑았을까? 이력서가 깨끗해. 여기 보여요, 여기? 달리기,, 나, 이력서에 달리기 쓰는 애 처음 봐. 아무것도 없는 애란 애기야. 이런 애 왜 뽑았을까?
2. 이런 짓까진 안 할려고 했는데, 애 이력서가 하도 이상해서 뒷조사 좀 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들, 애, 살인 전과 있는 애니다. 사람을 죽였다구요. 이건 몰랐지? 그래서 웬만하면 깔끔한 이력서, 살아온 날이 얼썬 보이는 이력서 뽑는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느낌 뻘뻘한 이력서 뽑는 게 아니고!
3. 알고 있었다는 말이네. 알면서, 이런 애를 계속 회사 다니게 둔거야? 어? 사람 죽인 애를?
4. 여기! 회사야! -윤 상무
1. 예, 그동안 파견직들을 보면, 스펙 좋은 친구들은 이직률이 높아서, 경영 지원에 필요한 정도의 업무 능력을 갖춘 사람이 오랫동안 저희 팀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지안 씨를 뽑았고, 이지안 씨는, 사교성은 없지만 영민하고, 무슨 일을 해도 생색내지 않고, 좋은 사람입니다.
2. 살인 아닙니다. 정당방위로 무죄판결 받았습시다.
3. 누구라도 죽일법한 상황이었습시다. 상무님이라도 죽였고, 저라도 죽였습시다. 그래서 법이 그 아이한테는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왜 이 자리에서 이지안 씨가 또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시다. 이런 일 당하지 말라고, 전과 조회도 잡히지 않게, 어떻게든 법이 그 아이를 보호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 보호망까지 뚫어가면서 한 인간의 과거를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십니까?
4. 회사는 기계가 다니는 뎀니까? 인간이 다니는 뎀니다! -박 부장

신임 상무 후보에 오른 박 부장을, 도준영측 인물인 윤 부장이 물고 늘어집니다. 박 부장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이지안도 공격대상입니다. 같은 이를 두고, 사람의 약점을 알아내 그를 파악하고 장악하여 이용해 먹고 매장시키려는 심보와 사람을 온전히 알아 그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살려주려는 마음의 차이가 보입니다. 선악과를 품어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죽이려 드는 반면,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살리려고 합니다.

하느님의 파악 불가능성, 또한 사람의,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신다. 따라서 “형언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하느님… 인간의 말은 언제나 하느님의 신비에 미치지 못한다. -가톨릭 교리서, 42항
마음은 내가 존재하고 내가 머무는 거처이다. 마음은 우리의 이성이나 타인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우리의 숨겨진 중심이다. -2563항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다 안다, 너를 파악하고 있다, 내 손아귀에 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앎’은,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신비로우신 분, 파악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느님이 당신을 앎게 만드신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파악 불가능한, 신비입니다.

파악하면 미워하고, 알면 사랑한다.

1. 사람만 죽인 줄 알았지? 별짓 다했지?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러게 누가 네 번 이상 잘해주래? 바보같이 아무한테나 잘해주고, 그러니까 당하고 살지.

2. 진짜, 내가 안 미운가? -이지안

1. 고맙다. 고마워. 거지 같은 내 인생 다 듣고도, 내편 들어줘서 고마워. 나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행복해야겠다. 너, 나 불쌍해서 마음 아파 하는 꼴 못 보겠고, 난 그런 너, 불쌍해서 못 살겠다.

2. 사람 알아버리면, 그 사람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내가 널 알아. -박 부장

도청한 것을 들키게 된 이지안, 지금껏 잘해줬던 박 부장이 이제는 미워할 거라 여깁니다. 박 부장은, 사람이 한 접이 아님을, 잘못된 면 그 이상으로 얼마나 좋은 면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뒤통수를 쳐서 밟다,고 말하지 않고, 내편 들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자유로이 인간을 창조하시어 당신의 복된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며, 있는 힘을 다하여 당신을 찾고, 알며, 사랑하도록 도와주신다. -교리서 1항

하느님처럼 사람도, 절대 파악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파악했다고 큰소리치는 이는, 이미 그 자체로 선악과를 품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파악하고자 하면, 미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도 사람도,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합니다. 나의 존재 전체를 걸고 다가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나’를 알고, 내가 산다.

아저씨 소리. 다 좋았어요. 아저씨 말, 생각. 발소리, 다... 사람이 뭔지, 처음 본 것 같았어요.

배경으로 사람 파악하고,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빠르게 왕따시키는 직장문화에서, 스스로 알아서, 투명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회식 자리에 같이 가자는 그 단순한 호의의 말을, 박동훈 부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박동훈 부장님은, 파견직이라고, 부하직원이라고, 저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존경하고요. 무시, 천대에 익숙해져서, 사람들에게 기대하지도 않았고, 인정받으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젠,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어쩌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오늘 잘린다고 해도, 처음으로 사람대접받아봤고, 어쩌면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이 회사에, 박동훈 부장님께, 감사할 겁니다.

박 부장을 파악하려고 도청을 시작한 이지안, 그의 삶을 듣고 느끼며, 그를 알아갑니다. 또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갑니다. 자신도, ‘살아있는’ ‘사람’일 수 있음을, 알아갑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뵈게 될 것이다.” 물론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하느님의 형언할 수 없는 영광 때문에 “하느님을 뵈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성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자하심과 전능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뵈는 특권을 주기까지 하신다. -교리서 1722항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면 이지안, 가족과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는 게 보기 힘들어 못 살겠다면 박동훈, 둘은, 서로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사람을, 또 자신을 알게 되었고, 자신을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으로 서로를 죽이려 드는 세상에서, 둘은 앎으로 빛을 보았고, 살아났습니다. 살아 있는 것,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부활 신앙의 생활화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부활(復活)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각자와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산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고, 허리케인(hurricane)이나 쓰나미(tsunami)가 휩쓸고 간 뒤의 아수라장(阿修羅場)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기대와 희망이 갑자기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모두 놀라며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주님께 대한 믿음을 키워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힘차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교회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유다 지도자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인식과 함께, 초대 교회의 부활 신앙은 불길처럼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재판 짜기와 같이 인류 역사의 흐름이 크게 변해갔습니다.

첫째, 안식일(安息日)이 주일(主日)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사람들은 구약의 관습대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일요일을 주일, 즉 주님이 승리하여 부활하신 날로 정하여 공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게 되었고, 주일의 미사성제는 모든 전례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 십자가 경배(敬拜)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사형 도구로 사용되어, 고통과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십자가는 경배의 대상으로 바뀌면서, 구원과 생명을 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곳곳에 여러 가지 형태의 십자가를 모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신앙고백이기도 합니다.

셋째, 역사(歷史)의 시대적 구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약(舊約)과 신약(新約), 기원전(紀元前)과 기원후(紀元後)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의 약속을 구약이라 하고, 그 이후의 약속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또 기원전은 B.C, 즉 before Christ라고 하며, 기원후인 A.D.는 anno Domini라 한다.

넷째, 그리스도교 사상(思想)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부터는 예술과 문화, 정치와 교육, 경제와 법률 등 모든 분야의 바탕에는 그리스도교 사상이 깔려있습니다. 또 인생관과 가치관, 윤리 도덕의 기준도 대체로 그리스도교 사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그리스도교 사상이 인류의 정신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죽음 후의 영생에 대한 확신(確信)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죽음의 의미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과정(過程)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가장 큰 사건이었고, 동시에 성탄과 함께 두 개의 축을 이루며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비(神祕)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는 죽음을 잘 받아들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며, 결국 승리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하는 세속적인 논리'보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신앙적인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가 갈라 2,20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바오로는 박해자였지만, 주님을 만나 고서는 과거의 삶을 회개(悔改)하고 새롭게 살아갔습니다.

신자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느님 구원 사업의 절정(絶頂)이었고,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실망과 좌절에서 벗어나 부활의 선포자가 되었듯이, 또 바오로가 박해자에서 복음 전파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 신앙을 생활화하여 더욱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드리면서, 부활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총을 많이 받으시길 빕니다.

2022년 4월 17일
주님 부활 대축일에
총대리 최봉원 야고보 신부



일림

교구 사목 방문

일시: 4월 21일(목)
본당: 회원동/ 월남동

교구/본당

그라츠 자매교구 위원회

일시: 4월 19일(화) 11:00
장소: 교구청

교구청 직원 소풍

일시: 4월 22일(금)

신입·복학 신학생 부모 피정

일시: 4월 24일(주일) 10: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청년 신앙강좌

일시: 4월 24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청년성서모임 '에파타' 교구청 그룹공부 신청 안내

청년들을 위한 성경 공부와 나눔 모임입니다.

기간: 4월 24일(주일)까지

모집주제: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신청: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 접수

문의: 청년성서담당 055·249·7050



2022 상반기 만남의 잔치

청년성서모임 만남의 잔치에 교구의 모든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5월 1일(주일) 10:00~15:30

장소: 밀양 명례성지

참가비: 5천 원

문의: 010·2961·9918

위원회/기관/단체

자비사도회 '하느님의 자비 주일 전 9일 기도' 안내

일정: 시작- 4월 15일(성금요일)
마침- 4월 23일(토요일)

▶1일 1선(말과 행동, 기도)

고해성사, 영성제로 전대사 은총 받으세요.

자비사도회 하느님의 자비 주일 미사 안내

일시: 4월 24일(주일) 15:00

고해성사-14:00부터

장소: 사파동성당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4월 기도모임

일시: 4월 18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발달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지원하는 시민옹호 사업

사업명: 손옹이(손에 닿을 곳에 시민옹호인이 있다) 2기 모집

모집대상: 성인 발달장애인, 장애인과 인권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활동기간: 5월~11월

내용: 발달장애인과 시민옹호인이 1:1 매칭되어 당사자가 원하는 활동 지원

문의: 마산장애인복지관 070·8798·4807

기타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성직자, 수도자, 장애인 50% 할인(전화필수)

성모님과 함께하는 치유 대피정

일시: 5월 13일(금)~15일(주일)/ 5월 20일(금)~22일(주일)/ 5월 27일(금)~29일(주일)

장소: 청도성모솔숲마을(대구대교구)

주제: "성모님 품에서 값없이 먹고 자고, 원없이 기도하자" 인원: 50명씩(피정비 없음)

문의: 010·5613·0166

재속 예수성심전교회 회원 모집

일정: 매월 첫 주일 10:00

장소: 부산 장전동 수녀원

대상: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사명에 참여하고 싶은 55세 이하 평신도

문의: 010·2312·2396

재속 맨발 가르멜회 마산 가르멜산 성모 공동체 회원 모집

일시: 모임-5월 16일(월) 10:00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대상: 만 55세 미만 신자

문의: 010·8525·1150

재속 프란치스코 지원자 모집

모집기간: 4월~6월

과정: 지원자반 1년 교육 후 입회

대상: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과 형제적 사랑을 살고자 하는 가톨릭 신자

문의: 010·5230·1420, 010·8782·9520

재속 프란치스코회 유프라(청년 모집)

모집기간: 4월~6월

대상: 신자 및 비신자로서 18~35세 미만의 미혼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 · 266 · 7010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주식회사 바른

도막형바닥재(관급자재 전문)/ 도장공사
칼라무늬콘크리트/ 벽화 및 디자인

주식회사 바른

(경상남도 전역시공 및 현장설치)
김가수 베드로 문의: 010-5055-0076



가톨릭마산

교구보 매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 문의: 홍보국 055.249.7072



일 림

남 여/ 태양과 바람 나무를 사랑하고 성 프란치스코처럼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젊은이
문의: 010·4557·5134, 010·6711·4013

재속 프란치스코회 생태영성 특강 안내

일시: 매월 둘째주 토요일
장소: 칠암동성당 대성전
대상: 신자 및 비신자
주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영성
주관: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
문의: 010·5230·1420, 010·5006·6254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피정 또는 단체 피정(5명 이내)
교육: 교리 교육
장소: 본원 피정의 집(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평화로 가는 길, 평화로 사는 길

한반도 평화를 예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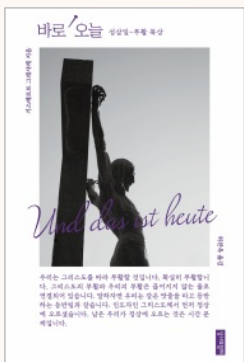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마태5:9)

함께 하는 사람들
맥박/ B'rass 금관오중주/ 학생넷 춤패
김은희·우창수 / 박영운·김유철
프리플라이트 / 찬양랜드 / 아를디자인

2022. 04.22(금) 18:30
창원 상남분수광장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24)

천주교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신간소개



바로 오늘 일어나는 사건, 부활! 바로 오늘 : 성삼일-부활 묵상

이 글은 단지 성삼일 전례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밝히는 선포이다. ‘바로 오늘’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 사랑을 체험한 이들은 모두 변화될 것이다.

- 출판: 성서와함께
- 지은이: 기스베르트 그레샤케
- 옮김: 허찬욱



가톨릭교회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교회 문헌을 읽는 일은 일종의 ‘난코스’ 탐험이다. 이 책은 이천 년 이어온 가톨릭교회의 성경 해석 정신을 밝히고 실제 예를 다양하게 담은 교회 문헌 네 권을 풀어 소개한다. 마치 딱딱한 게 껍질을 벗기고 부드러운 속살을 맛보듯 궁금해하던 성경의 어려운 구절들까지 새롭게 보게 되는 기쁨을 얻을 것이다.

- 출판: 성서와함께
- 지은이: 안소근 수녀



부활의 봄-김동리의 『부활』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김동리의 『부활』은 일곱 페이지짜리 짧은 소설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성한 기적이다. 입구를 막은 바윗돌은 치워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다. 그렇게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런데 소설 『부활』은 이 신성한 기적을 무척이나 일상화한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로 등장하는 아리마대의 요셉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언을 확인하고 싶었던 그는 골고다 언덕의 처형장에 가고 마침내 숨을 거두는 예수님을 지켜본다. 그러면서도 십자가 형틀에서 죽었던 사람이 나중에 되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심 예수님이 살아 있으리라 믿는다.

그래서 그는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자신이 마련한 무덤에 시신을 안치한다. 안식일 밤(예수님이 죽은 다음날) 요셉은 예수님의 꿈을 꾸고 그의 호수같이 맑은 두 눈을 보며 심장이 마비되는 듯한 구원의 느낌을 받는다.

“랍비여! 랍비여!”

내가 울음과 함께 떨어 나오는 목소리로 이렇게 그를 부르며 두 손으로 그의 내밀어진 왼쪽 손을 붙잡으려 했을 때 그는 홀연히 내 앞에서 사라졌다. 아니, 나는 눈을 뜨고 있었다. 나의 두 볼에는 싸늘한 눈물마저 흘러내리고 있었다.

요셉은 하인을 깨워 마차를 몰아 무덤에 이르고, 술에 취해 잠든 병사들 몰래 바윗돌을 치우고, 그리고 어두운 무덤 안에서 살아 있는 예수님을 만난다. 놀란 요셉은 하인과 함께 예수님을 부축하여 아리마대로 달려간다.

이후 예수님은 사흘 동안 누워서 조금씩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그렇게 조금씩 건강을 회복한다. 그러면서 또 며칠이 지났다.

사흘에서 또다시 사흘이 지나니 두 번째 안식일이 돌아왔다. 닭이 세 회를 울자 예수님은 골방에서 나왔다. 어느 사이엔지 옷도 다 갈아입고 있었다.

소설의 마지막 구절이다. 예수님이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은 곧 부활을 상징한다.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난 예수님, 요셉의 도움으로 무덤에서 빠져나온 예수님, 며칠간 병석에 누워 있던 예수님, 마침내 일어나 새 옷으로 갈아입은 예수님. 너무나 지상적이고 평범한 부활이다.

어릴 적부터 기독교 환경에서 자란 김동리 작가가 부활의 의미를 폄하하고자 이렇게 썼을 리는 없다. 부활이 신이한 기적에 머무르는 한 그것은 오직 천상의 것이며 우리 인간은 그저 바라보고 기대기만 하는 존재에 그친다. 부활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비로소 우리 인간도 부활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나는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고 함께 아파하는가. 나의 양심은 맑고 투명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끝없는 고민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 톨스토이의 『부활』에서 카추사로 하여금 살인의 죄에 이르게까지 한 네플류도프는 타락한 자신의 양심에 괴로워하고 마침내 산상수훈을 읽으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 위대한 작가가 말하는 부활도 천상의 기적이 아니라 고뇌를 통해 새로 태어나는 한 인간의 일이다.

부활절이 있는 봄이다. 나무의 잎마다 연둣빛 물이 오르고 대지는 꽃을 피워 올린다. 이 신비한 부활의 계절에 우리도 눈부신 잎과 꽃들처럼 새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